

'가벽'한 왕의 귀환



벤츠 E클래스, 디지털·개인화 탑재해 돌아왔다

'더 뉴 메르세데스' 출시...유튜브·멜론 등 다양한 앱 사용 가능
오디오·주차 카메라·앰비언트 라이트 등 운전자 루틴 기능 탑재
모든 라인업 전동화 시스템·넓어진 실내공간·최고의 정속성 구현

메르세데스-벤츠의 '심장' E-클래스의 새로운 모델이 공개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코리아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11세대 완전변경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를 공식 출시했다.

11세대 신형 E-클래스, 코드네임 W214는 국내 시장에 8년만에 출시되는 풀체인지 모델이다. 이번 더 뉴 E-클래스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잇는 외관 디자인과 전동화 기술 적용을 통해 향상된 주행 성능과 최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을 자랑한다.

메르세데스-벤츠의 핵심 모델인 'E-클래스'는 8년 연속 국내 수입차 판매 순위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E-클래스 세단 판매 1위 시장이기도 하다.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더 뉴 E-클래스는 고유의 헤리티지와 기술력 및 안전성에 더해 수준 높은 디지털화와 개인화를 구현해 다시 한번 '가장 지능적인 비즈니스 세단'의 명성을 공고히 할 모델"이라며, "이번 11세대 E-클래스는 지난 8년간 10세대 E-클래스가 쌓아온 성공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더 뉴 E-클래스는 국내에 총 7개의 라인업으로 선보여진다. 가장 먼저 E 300 4MATIC 익스클루시브, E 300 4MATIC AMG 라인인 이달 먼저 인도되며, 1분기 중 E 220 d 4MATIC 익스클루시브가 인도될 예정이다. 이후 E 200 아방가르드, E 450 4MATIC 익스클루시브, E 350 e 4MATIC 익스클루시브, 메르세데스-AMG E 53 하이브리드 4MATIC+가 출시될 계획이다.

이번 완전변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디지털화'와 '개인화'다. 더 뉴 E-클래스에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전용 운영체제 MB.OS의 선행 버전인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다.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전 세대 대비 더욱 지능적이고 높은 학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탑승객들은 차 내에서 유튜브(YouTube)와 줌(Zoom), 앵그리버드(Angry Bird) 등 다양한 제3자 개발 앱으로 풍성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과 협업해 에센셜(essential), 플로(FLO), 웨이브(Wave), 멜론(Melon) 등 국내의 다양한 앱을 더 뉴 E-클래스에서 즐길 수 있다. 또 티맵 모빌리티(TMMap MOBILITY)의 실시간 교통정보에 기반한 자체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최



적화된 차량용 내비게이션 티맵 오토(TMMap AUTO)를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더불어 5G 커뮤니케이션 모듈 탑재로 기존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은 14.4인치 고 해상도 LCD 중앙 디스플레이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MBUX 슈퍼스크린에서 사용 가능하다. MBUX 슈퍼스크린은 중앙 디스플레이와 동승자 측 디스플레이가 이어진 새로운 형태의 스크린이다.

또 더욱 개인화된 차량 설정을 지원하는 '루틴(routine)'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다. 운전자는 온도 설정, 앰비언트 라이트, 오디오, 주차 카메라 등의 차량 기능을 날짜 및 시간, 위치, 내·외부 온도, 차량 속도 등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특정 조건과 연결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편의 기능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

국내에 출시되는 더 뉴 E-클래스 전 라인업에는 가장 최신 주행 보조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가 탑재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최초로 주행 중에도 도로 위에 헤드램프로 기호를 투사하는 프로젝션 기능이 더해진 디지털 라이트가 출시된다.

더 뉴 E-클래스는 모든 라인업이 전동화 시스템을 갖춰 뛰어난 주행효율성과 성능을 자랑한다.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세대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통해 시동을 걸 때 최대 17kW의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부드럽고 신속한 엔진 시동을 돕고, 글라이딩, 부스팅, 회생제동 등을 제공한다. 추후 출시될 4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대 출력 95kW의 전기 모터를 탑재했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115km의 (WLTP 기준) 주행 거리를 제공해 출퇴근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순수 전기 중심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더 뉴 E-클래스의 외관은 클래식한 세단의 비율과 스포티한 캐릭터 라인이 돋보이며, 메르세데스-벤츠의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 모델 최초로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선택 옵션으로 제공돼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제공한다. 더 뉴 E-클래스는 국내 인증 기준 이전 세대보다 20mm 더 길어진 휠베이스로 보다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자랑하며, 세밀하게 설계된 차체 형태, 공기역학적 디자인 요소 및 방음등 등을 통해 등급 최고의 정속성을 구현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번 더 뉴 E-클래스 출시를 기념해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인 메르세데스-벤츠 스토어에서 이달 25일부터 '더 뉴 E-클래스 프리미어 스페셜'을 214대 한정 판매한다. '프리미어 스페셜'은 알파인 그레이 외장 컬러와 톱카 브라운 인테리어 조합으로 현대적인 분위기가 강조됐으며, 리어 액슬 스티어링, 에어 매트릭스펜션,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 및 블랙 컬러의 20인치 AMG 멀티 스포크 휠이 휠 등 더 뉴 E-클래스의 매력을 배가하는 옵션들이 추가됐다.

더 뉴 E-클래스의 국내 출시 라인업과 가격 및 제원은 아래와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64개 공식 전시장 및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www.mercedes-benz.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기아, 미국 시사주간지 '최고의 고객가치상' 7개상 수상

'US 뉴스 앤 월드리포트' 발표
3년 연속 최다 수상 브랜드 선정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 월드리포트'가 발표한 '2024 최고의 고객가치상'에서 가장 많은 7개 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US 뉴스 & 월드리포트는 1948년에 시작된 시사 주간지로, 주행 성능, 안전성, 기술 등에 대한 자동차 전문 매체들의 분석에 근거해 차량의 품질과 상품성을 평가한 후 '최고의 고객가치상' 수상을 뽑는다. 이 평가에는 수리비, 연료비 등 차량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중고차 가격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앞서 현대차·기아는 지난 2022년 '최고의 고객가치상'의 11개 부문 중 가장 많은 6개 부문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도 12개 부문 중 최다인 7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올해에는 총 11개 부문이 시상된 가운데 현대차의 이반테 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 승용차), 아이오닉5(전기 SUV), 투싼(준중형 SUV)이 상을 받았다.

또 기아의 텔루라이드(대형 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 SUV), 스포티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쏘울



기아 텔루라이드.

(소형 SUV)이 각 부문 최고의 차로 선정됐다. US 뉴스 & 월드리포트는 수상 결과와 관련, "수상 차량은 우수한 상품성과 품질은 물론 합리적인 경제성까지 갖춰 고객에게 가치 있는 소유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최고의 고객가치상' 최다 수상 브랜드로 선정됐다"며 "고객에게 더욱 향상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불티나게 팔렸다

전년 대비 8.8%↑...역대 최다 판매

지난해 수입차 판매가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판매는 오히려 증가해 비중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 대수는 7만 8208대로, 전년(7만 1899대)보다 8.8% 늘었다. 역대 최다 판매량이다.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은 2020년 4만 3158대, 2021년 6만 5148대, 2022년 7만 1899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수입차 전체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4.4% 감소한 27만 1천 344대인 것을 고려하면 1억원 이상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8.9%로, 30%에 육박했다.

수입차 3대 중 1대는 1억원이 넘었다는 뜻이다. 1억원 이상 차량 판매 대수를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메르세데스-벤츠가 3만 2789대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BMW(2만 2890대), 포르쉐(1만 1355대), 랜드로버(4334대), 아우디(2932대) 등의 순이었다.

모든 모델 가격이 1억원을 넘는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는 올해 처음으로 '1만대 클럽'에 가입하며 고급 수입차 인기를 견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기아 '올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 신규 멤버서터 선정

양재진 원장·임윤선 변호사

현대차·기아는 22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 원장과 변호사 임윤선을 '올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멤버서터로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재진 원장은 마인드카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으로,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해박한 전문 지식과 입담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구독자 62만명의 인기 유튜브 채널 '양브로의 정신세계'를 운영하고 있다.

임윤선 변호사는 법무법인 민 소송변호사로, 다수의 시사교양 및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올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제공받게 된 두 홍보대사는 각각의 전문 분야와 방송 영역에서 활동하며 올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매력을 알리고, 현대차·기아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